

데스크 시각



김미은
여론매체부장·편집국 부국장

지난해 말 10여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서울 방문 땀 연제나 박물관보다는 미술관이었지만 이번에는 ‘국궁박’이 일순위였다. 국궁박은 ‘케이팝대문 헌터스’의 인기로 연일 화제의 중심이었다. 지난해 방문객은 2024년보다 72%가 증가한 650만명에 달했다. 2024년 1·2위를 차지한 루브르박물관과 바티칸박물관 방문객은 874만명과 683만명이었다. 박물관 굿즈인 ‘뭇츠(MU:DS)’ 매출액은 400억원을 넘어섰다.

신안해저선 만나는 ‘도자문화관’

박물관은 평일인데도 소문처럼 사람이 많았다.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이 나란히 전시된 ‘사유의 방’은 단연 압권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기증관’, 카타르 도하 이슬람예술박물관과 협업한 ‘이슬람관’이 좋았다. 화제의 뭇츠 판매장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품질 표시가 붙어 있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잔’을 비롯해 ‘까치 호랑이 뱃지’ 등 상품 종류에 놀랐다. 오랜만의 국궁박 나들이에, 국립광주박물관을 떠올렸다.

지난해말 문을 연 도자문화관이 궁금해 며칠 전 국립광주박물관을 찾았다. 마지막 방문이 2022년 ‘이견희 회장 기증 특별전’이었으니 오랜만이였다. 본관에서는 마침 도자문화관 개관을 기념해 ‘푸른 세상을 빛다·고

광주의 문화자산, 박물관 산책

려 상형 청자’전(3월15일까지)이 열리고 있었다. 동물, 식물, 인물 등의 형상을 본뜬 도자기들이라 아이들도 흥미롭게 감상하는 모습이었다.

4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국립박물관 최초로 문을 연 도자문화관은 지상 2층 규모로 총 7000여 점을 전시 중이다. 한국도자 1000년의 숨결이 깃든 500여 점을 만나는 전시실과 함께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신안해저 도자 전시실’이었다. 마치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서다. 1975년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68㎝짜리 청자 꽃병을 발굴하며 시작된 ‘신안 해저선’ 유물 발굴은 9년간 이어졌고 커다란 배와 2만 7000점의 유물을 확보했다. 전시장에는 바다 밑 진흙 속에서 700년간 원형을 유지한 청자·백자·흑유, 동전 등 65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유물도 유물이지만 무엇보다 관람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개관 초라 방문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광주에서 열렸던 그 어느 전시에서도 이렇게 몰입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휠체어에 탄 노모에게 작품을 설명해주는 아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옛 시절을 떠올리던 어머니, 아이들과 함께 도자기 제작 과정 영상을 하나하나를 찾아보던 부부, 유물을 꼼꼼히 살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젊은 커플까지 모두가 전시에 몰입한 듯했다.

개인이 일군 ‘비움박물관’ 10주년

국가가 나서 수집한 수많은 유물에 감탄하다 어딘가에 마치 설치미술처럼 전시돼 있는 수백 개의 ‘흰 막사발’과 ‘항아리’가 생각났다. 아름다운 베게 자수, 커다란 똥 항아리, 어둠을 밝히는 등잔, 누군가의 먹줄거리가 담겼을 쪽박, 갓 등 수 만점의 민속용품도 떠올렸

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는 ‘비움박물관’에 전시된 우리 삶의 흔적들이다. 관장 ‘홀로’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발품을 팔아 사라져가는 것들을 한 자리에 모은 비움박물관의 소장품을 볼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낀다.

황지우 시인은 2016년 개관 당시 “비움박물관 컬렉션은 1960년대 전후 우리네 ‘삶의 끝’이 근대 이행의 진공청소기 속으로 빨려들어감으로써 소거해 버린 ‘상실의 시간들’을 아슬아슬하게 붙잡아온 생활사의 보고”라고 말했다.

방명록에는 담긴 글귀도 마음을 울린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엄마를 떠올리게 해주어서, 수십년만에 다시 찾은 고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글귀가 눈길을 끌고 ‘색다른 한국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며 찬사를 보낸 외국인들의 글도 이어진다.

아슬게도 아직까지 지역에서 비움박물관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다. 얼마 전 중학생 아들과 박물관을 다시 찾은 부산의 한 교육자처럼 외지 방문객들의 반응은 열렬한 데 비해 지역민들의 호응은 낮은 편이다.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모르는 것일까.

지역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많다.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이런 공간들은 도시의 모세혈관과 같다. 소중한 공간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금관을 보러 경주국립박물관으로, ‘백제대향로관’을 찾아 국립부여박물관으로 떠나듯 신안해저선의 흔적과 한국도자기의 역사를 만나러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전국민의 발길이 이어지면 좋겠다. 더불어 비움박물관 등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우선 두 박물관을 먼저 방문해 보시라. 시간을 넉넉히 갖고 느긋이 관람하며 역사 속으로 빠져 보시길.

까치밥이 전하는 교훈

이 남겨진 감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낸다. 그 과정에서 새들이 감 씨를 멀리까지 옮기며 감나무의 씨앗이 퍼지는 자연의 순환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인간의 작은 배려가 결국 생태계를 유지하고 살피우는 데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이러한 공존의 철학은 우리의 ‘고수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옛날에는 들이나 산에서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어야 할 경우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고수레’하며 던지는 풍습이 있었다. 농사일 중 새잡이나 점심을 먹기 전, 들을 지키는 지신(地神)이나 수신(水神)을 향해 먹을 음식의 첫 손가락을 떼서 공중으로 던져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의식이 고수레다. 배가 고프다고 하여 맛이 있다고 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변과 자연을 살피는 넉넉한 마음씨이다. 자연을 숭상하고 절대자와 함께하려는 우리 조상들의 삶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이자 인권운동가인 필벽 여사가 1960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다. 황혼 무렵 벚단을 지게에 진 채 소탈한 옷을 입고 귀가하던 농부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벚단을 끌고 가는 소의 짐을 덜어 주기 위해 자신의 지게에 벚단을 나누어지고, 나란히 집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다. 필벽은 감나무 끝에 달린 따지 않은 감나무를 보고는 “저 높은 곳의 감들은 따기 힘들어서 남긴 것인가요?”라고 물었다가 “까치밥이라 해서 겨울 새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크게 감탄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와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해요”라고 했다. 필벽 여사는 훗날 그의 저서 ‘살아있는 갈대’ 책 첫머리에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극찬했다. 이는 1960년 한국 방문 경험 때문이었다.

요즘 많은 이들이 ‘나’만 보고 살아가려 한다.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 불감증’이 아닐까 한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감나무에 까치밥을 남기고, 음식을 먹기 전에 고수레하고, 육심이 동티를 불러온다는 것을 단단히 새기면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까치밥과 고수레는 “같은 자연으로 함께 삽시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제언이다.

조상들이 남긴 상생과 나눔의 철학, 까치밥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세상은 먼 데 있지 않다. 자연을 존중하고 공존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 그 출발점이 바로 까치밥이 들려주는 소중한 교훈이다.

책 읽기의 즐거움

더 주기도 했다. 특히 주인 아가씨에 대한 목동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알퐁스 도데의 단편 ‘별’은 이성(異性)에 눈뜨기 시작한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책에 대한 감명 덕분에 프랑스에 대한 동경이 생겼고 당시 제2외국어로 택한 불어를 열심히 하기도 했다.

대학에 가서는 내 처지와 비슷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불어 원서로 읽기도 했다. 이때 문학작품을 원서로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불문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했고 프랑스 유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귀국 후 시에 관심을 갖게 된 후로는 시에 관련된 책들(시 선집, 평론집)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시 선집은 암송시를 고르는데, 평론집은 시를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최근엔 소설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 김원일 작가의 다음 글을 읽고는 소설의 가치를 더 깨닫게 되었다. “소설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소설을 읽으면 그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형편, 각계 각종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그 사회의 모순 구조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책이 가득찬 서재를 사랑한 A교수는 밖에서 다소 불쾌한 일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서재에 와서 책과 마주할 때면 마음이 다시 평온해졌다고 한다. 그는 책과의 만남이 삶을 변화 시킨 예를 들려주었다. 우연히 교도소에서 자신의 수필집 ‘뜻이 있는 곳에 길이’를 여러 번 읽고 감화를 받은 전과자가 출소 후 새 삶을 찾은 후 자신을 찾아와 울면서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한다. 좋은 책

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경우를 보면서 책의 위대함을 느끼기도 했다.

최근 새로 생긴 P안과의원 건물 안에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다가 2층으로 연결된 층계에 몇 개의 독서에 관한 금언을 보고 사진을 찍어 왔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꿈을 꾸는 것이다.” (페르난두 페소아) “독서는 그저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필수적인 도구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한 권의 책을 책장에서 꺼내 읽고 다시 꽂았다. 나는 이미 조금 전의 내가 아니다.” (앙드레 지드)

“꼭 전하고 싶은 말들”이란 부제가 붙은, 최근 출간된 이해인 수녀의 수필집 ‘민들레 솟털처럼’엔 이 수녀의 독서 고백이 들어 있다. “시인으로서 50년, 수도자로서 60년의 인생 여정을 잘 걸어오게 해준 비결을 누가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책 덕분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 언제 어디서든 변함 없이 ‘기밀 언덕’ 또는 ‘숨은 보물섬’이 되어준 인생의 스승이자 친구는 책들이었어요.”

피천득 선생도 한 수필에서 문학이 무엇이고 문학이 왜 좋은지 잘 밝혀 준다. “문학은 금싸라기를 고르듯이 선택된 생활 경험의 표현이다. 고도로 압축되어 있어 그 내용의 농도가 진하다. 짧은 시간에 우리는 시인이거나 소설가의 눈을 통하여 인생의 다양한 면을 맛볼 수 있다.”

새해엔 무엇보다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 내면의 뜻을 잘 가꾸었으면 한다.

社說

‘기대와 우려’ 교차한 공청회 민심 살피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가 시작됐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물론 양 시·도 교육감까지 참석해 주민들을 상대로 행정 및 교육 통합이 가져올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제 광주 동구와 영암군을 시작으로 어제는 장성군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 수백명의 주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행정통합으로 탄생하게 될 통합 광역시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공청회는 한마디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자리였다. 주민들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 득실을 따지는 모습이었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도약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시·도지사들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들의 지역에 어떤 혜택과 불이익이 있을지 관심을 보였다.

당연한 반응이다.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으로 당장 7월부터 통합 광역시가 출범하게 되고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텐데 관심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공청회의 목적은 행정통합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대보다는 우려에 더 귀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농어촌이 소외되지 않을까하는 전남 주민들의 우려가 더 컸다. 인구와 인프라가 대도시인 광주로 쏠리면서 농어촌이 더 소외돼 소멸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다. 통합시 명칭을 두고 벌이는 광주와 전남 주민의 시작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부수적인 문제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듯이 행정통합으로 인해 광주로 인구·교통·교육·문화 등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남은 공청회 기간 주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행정통합으로 인한 기대 효과보다 주민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연착륙하는 길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저조한 이유 있었네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천차만별인 것은 기관들이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한 탓이 크다.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6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농어촌공사가 87.5%인데 반해 한국전력은 31.14%에 그쳤다. 농어촌공사를 제외한 5곳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0%대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는데 기관들이 연간 5명 이하를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빛가람혁신도시 9개 기관은 총 136회의 채용 시험을 치렀는데 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98회는 5명 이하 수시채용을 통해 의무채용 제도를 피해갔다.

이렇다보니 2023년 기준 국토부가 발표한 지역인재 채용률은 40.7%였지만 실

제 채용률은 17.7%로 격차가 컸다. 혁신도시법에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교적 적극적인 농어촌공사마저 할당 인원의 87.5%만 지역인재로 채용 정도로 아직도 제도 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감사원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가점제와 할당제를 폐지하고 권역 통합을 권고한 것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다. 예외 규정을 적용해 의무채용을 피해 가는 공공기관의 쑤수를 더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혁신도시 시즈2 실행을 앞둔 시점에서 감사원의 이같은 권고는혁신도시법 취지에도 맞지 않거나와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아 아쉽다.

無等鼓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오누이는 깊은 숲속에서 나무하러 떠난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소용없었다. 계모가 아이들을 숲에 버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오누이는 계모가 한 말을 엿듣고 숲길에 조약돌을 뿌려뒀다. 달빛에 비친 조약돌은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줬다. 계모는 다시 남편을 졸랐다. 이번에는 계모가 미리 알고 밤에 문을 밖으로 잠그는 바람에 조약돌을 줌지 못했다. 오빠는 대신 점심으로 받은 빵을 조금씩 떼어 떨어뜨렸지만 새들이 모두 먹어버려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림(Grimm) 형제 의 이 동화는 아이들의

마음에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무겁게 새겨줬다.

살다 보면 현실에서는 이 동화와는 달리 헛갈리는 방향 못지않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과정 즉 시간과 속도도 중요하다는 점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에는 방향과 목표를 잘 설정했다 치더라도 자칫 속도가 지나치거나 느리다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정책을 수립해 수행하는 일을 자동차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에 빗낼 때 차에 주행하는 속도를 표시하는 속도계가 있고 운전자의 머릿속에도 계획한 방향으로 잘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불안해하는 이유다. 더구나 자동차의 속도계마저 완전히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두려움은 더할 것이다. 정부의 ‘제작자 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실제 속도가 시속 100km일 때 속도계는 100~112km 사이를 가리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차량의 속도계는 실제보다 3~10% 더 높은 속도를 표시하는데 이 같은 차이는 고속일수록 더 벌어진다.

최근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입법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청회를 열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행정통합과 별개로 교육통합에 대해서 방향과 속도 모두에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는 것 같다. 방향과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 속도를 잘 조절해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김대성 전남 서충무 전북 취재부장 bigkim@

은펜칼럼



송민석
수필가·전 대학 입학사정관

단풍이 곱게 물들 때쯤이면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것이 나의 오랜 습관이다. 이때쯤이면 늦가을, 어김없이 지리산 작은 골짜기 마을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빨간 홍시가 눈길을 끈다. 이를 보면서 각박한 인생길의 등불 같은 ‘까치밥’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까치밥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옛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여기저기에 녹아 있다. 어느 시인은 ‘까치밥을 따 버리면 빈 겨울 하늘만 남을 것’이라고 노래하기도 했다.

둘레길을 걸으며 우리 선조들의 ‘까치밥’ 문화를 통해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모습이 아니다. 이 작은 풍경 속에 선조들의 지혜와 공생의 철학이 담겨 있다. 너나없이 가난한 세상,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춥고 배고픈 시절에도 생명의 온기를 나누던 지혜의 상징이 아닐까 한다.

생태계 순환의 지혜가 담긴 까치밥은 겨울철에는 먹을거리가 부족해지는 까치, 참새, 직박구리 같은 새들

기 고



문길섭
시암송국민운동본부 대표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책은 어릴 때부터 나를 행복하게 해 준 것 중의 하나다. 천국이 좋다지만 거기 책이 없다면 무척 아쉬울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 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으로는 어린 나를 슬픔에 빠뜨린 ‘플란다즈의 개’와 나라를 위해 장렬한 전사(戰死)를 택한 ‘계백장군’ 전기로 기억된다. 고학년이 되어서 만화책이 좋아 웅돈만 생기면 만화방에 달려가 좋아하는 만화의 다음 호를 탐독하곤 했다.

중학생이 되고서는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글들이 좋았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황순원의 ‘소나기’는 아름다운 단문으로 이어진 문장이 좋아 여러 번 읽었다. 많이 읽어선지 지금도 첫 대목이 입에 붙어 있다.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시네 증손녀 딸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이양하의 수필 ‘신록예찬’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었고,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은 어떤 삶이 좋은지 가르쳐 주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서는 국어책에 나오는 시들이 대학입시 준비로 마음에 여유가 없던 때 잠시 숨통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함))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